

SK이노, 작년 영업익 ‘반토막’… 배터리 매출은 ‘역대최대’

정제마진 하락 여파 영업익 51%↓
연간 매출 77.3조, 영업익 1.9조

“올 불확실 환경 속 판매량 증가세
출하량 증가 등 하반기, 개선 기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정제마진 하락 등의 여파로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다만 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다. 특히 배터리 사업부에 7조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해 올해 실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77조2885억원 영업이익 1조9039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0.98% 줄었고 영업이익은 51.4%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9조5293억원, 영업이익은 726억원을 달성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98억원, 1조4905억원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전경.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3926억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연간 판매량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재고 소진에 따른 출하량 증가, 낮은 메탈가 유지로 인한 배터리 가격 하락, EV 신차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석유사업은 정제마진의 약세,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관련 손실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화학사업은 제품 스프레드 하락에 따른 마진 감소,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감소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운할유사업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를 유지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석유개발사업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17/03 광구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판매물량이 늘어나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배터리사업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2조 8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메탈가 하락 등에 따른 역대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이트 수율 향상 등 해외법인의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법인 비용 절감에 따른 원가 감소 효과로 영업 손실률을 최소화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됐다. 소재사업은 생산원가 감소 등 비용개선 효과와 중국 법인 인센티브 반영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

회사에 따르면 SK온의 주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110조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10조 이상 늘었다. 현재 기존 고객사와의 증량 및 신규 고객사와 협의 중인 물량을 고려하면 주주 물량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김지원SK이노베이션재무본부장은 “배터리 사업에서 주요 전략 시장인 북

미에 이미 확정된 포드·현대차 JV(조인트벤처)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 설명했다.

SK온은 올해 상반기 헝가리 3공장과 중국 옌청 공장의 증설을 완료하고 사업 생산에도 적극 나선다.

박정아 SK온 IR 담당은 “올해 증설 예정인 두 공장은 현재 높은 수준의 수요를 기록 중인 곳 근처에 있어 조속한 초기 수요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계획 대비 2개월 이상 수요 안정화 기간을 단축할 예정으로 보다 빠른 램프 업(생산량 확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해 현금 및 현금배당을 대신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총 491만9974주로 장부가 기준 7936억원 규모이다. 이는 기존 발표한 배당성향 30%를 상회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2023년 실적 기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은 319%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업, 1만원 팔면 물류비로 690원 쓴다

대한상의, 제조업체 등 1500곳 조사
매출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 7.8%
3000억 이상 기업 4.4%의 두배수준

기업들이 1만원짜리 제품을 팔면 물류비로 690원을 지출한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 약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시한 기업물류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6.9%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물류비 비중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매출액 3000억 이상 기업의 물류비(4.4%)의 두 배에 달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물류비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10.9%)과 ‘소매업’(10.6%)의 물류비가 가장 높았다. 음식료품은 상품유통 과정에서 포장

비가 많이 들고 추가적으로 냉동냉장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매업은 특성상 주문, 배송, 반품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업무량이 필요해 물류비가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소매업의 판매물류비 비중은 44.5%로 전체 평균(40.4%)과 비교해 4%포인트 높고, 리버스(회수·폐기·반품) 물류비 비중 11.5%까지 반영 시 56%로 전체 물류비의 절반 이상을 상품을 판매·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물류비 중 운도에 영향을 받는 정온제품을 취급하는 물류비 비중은 대한상의가 조사를 시작한 2016년 7.9%에서 2022년 36.3%로 6년 새 4.6배 확대되는 등 콜드체인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조사에 의하면 온라인쇼핑 품목 중 콜드체인이 동반되는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음식 서비스 상품군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1%씩

증가하면서 6년간 시장규모가 13조 2000억원에서 67조1000억원으로 5.1배 성장했다.

기업들이 꼽은 물류비 절감 방안으로는 ‘체계적인 물류비 산정 관리’가 37.6%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배송빈도·적재율 향상’(31.4%), ‘재고관리 강화’(30.8%), ‘물류정보화·표준화·자동화’(24.3%), ‘수·배송 경로 개선’(20.0%), ‘물류 아웃소싱’(13.4%)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김민석 유통물류정책팀장은 “몇년 간의 코로나, 러·우 전쟁, 홍해를 비롯한 중동리스크 등으로 유가와 해상운임이 오르는 등 물류비가 높아졌다”면서 “중소기업은 공동물류를 통해 물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 간 물류협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유통기업에 대해선 유통물류시설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유실적 부진… HD현대, 작년 영업익 40%↓

매출은 0.8% 늘어 61.3조 기록

HD현대가 정유 부문 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다만 매출은 2년 연속 ‘60조원 이상’을 기록했고, 그룹의 핵심인 조선 부문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현대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61조3313억원, 영업이익이 2조316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은 친환경 선박 수주 증대에 따른 건조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

한 반면 영업이익은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 등 정유 부문의 실적 감소로 40% 줄어들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따른 수주량 확대와 건조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21조 296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에 따른 선가 상승분이 실적에 반영되며 3년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32.3% 늘어난 11조 9639억원, 현대미포조선은 8.7% 증가한 4조 391억원, 현대삼호중공업은 28.2% 증가한 5조 958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년 대비 1604.5% 증가한 30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수주 호조세와 스마트 선박 운영 관리·자동화 솔루션 등 디지털 제어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7.2% 늘어난 매출 1조 430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1.9% 증가한 201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

/양성운 기자 ysw@

〈’23.11월 ~ ’24.1월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자료=공정위

2023. 11.1.	편 입				제 외					증감	2024. 2.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	계		
3,084	28	16	5	49	30	14	19	27	90	△41	3,043

대기업 첨단분야 계열사 8곳 늘었다

대기업 계열사에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분야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최근 3개월간(2023년11월~2024년1월)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1일 기준 3084개에서 올해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7곳이다.

공정위, 소속회사 변동 현황
3개월간 41개 집단서 90개 계열 제외 SK, 반도체 테스트 관련업체 인수 현대차·LS·롯데 등도 계열사 편입

구체적으로 회사설립(신규 22개사, 분할 6개사), 지분취득(16개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사), 지분매각(14개사), 청산종결(19개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SK(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LS·DL(각 3개) 순이고,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SK·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

지난 변동 현황과 비교하면,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는 14개 감소했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21개 증가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41개 줄었다.

소속회사 변동 특징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와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 8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SK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인 아이에스시엔,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을, LS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을 설립해,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

부동산 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 계열 편입과 제외도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 개발업체 STX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반대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GS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해짐에 따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